

1990년 11월 걸프만 지역에 많은 미군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베트남 참전시보다 증강된 군사력이며, 냉전시대의 유럽 배치 병력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다.

백악관의 결정이 있는 후 1~2일 사이에 영국의 대처 수상은 이라크가 계속적으로 쿠웨이트에 남아있으면, 후세인의 세력에 대항하는 군사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여러 공식석상에서 공공연하게 밝혔다.

후세인은 서방측이 군사적 대결보다는 외교적인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西岸(West Bank)과 Gaza 지구를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협상을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압력이 가해진다면, 후세인은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이것은 승산이 없는 것이지만,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분명한 것은 후세인이 최후까지 버텨으로써, 죽음의 파도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강경론자들은 후세인과 그의 군사정권 및 특히 이라크의 화학무기와 추정되고 있는 핵무기는 빨리 없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력으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할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불법적으로 통제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온건론자들은 군사력의 사용없이 후세인을 굴복시킬수 있으며, 후세인인에게 교훈을 가르키는 것이 미군과 연합군의 생명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에 미국의 대부분 동맹국사이의 여론은 『기다려 보자 그리고 나서 싸우자』였다.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들은 UN 금수(禁輸) 제재조치가 유효하기 시작할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조치는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몰러나게 하고, 이라크의 군사력을 사막에 사장(死藏)시킬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진 이후에 군사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보다는 전쟁으로의 전환 결정은 한손에는 금수조치와 다른 손에는 군사력 동원이라는 조치를 야기시킨 대결에서, 어느 한쪽이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산 하에서 야기된 것이다.

작년 11월까지 미국의 정책입안가들은 8월 2일 쿠웨이트 침공 이래로 최소의 것만 얻은 쪽이 먼저 군사력이라는 선택을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과 이라크의 3개월의 대치기간동안 많은 것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백악관으로서는 1월의 서방 전쟁억지력의 증가 즉 군사력의 강화는 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첫번째 강타를 가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할수 있는 것이며, 전쟁발발 억지력이다.

머나먼 사막에서 8조5천7백여억원(美貨 1백20억불) 이상의 비용을 소모하는 50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주둔이 실지로 얻을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수백명의 서방인질을 잡아놓고 있을때는?

이라크가 쿠웨이트에서 부분적으로 물러나고 대분의 인질을 풀어 준다면, 11월까지의 상황은 깊은 상처를 천천히 치료하는 좋은 것으로 여겨질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서방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예를들어 이라크에 대한 UN의 행동을 야기시킨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결속은 전례가 없었던 것이며, 국제문제는 국제적인 해결이라는 기초에 썩어 뿌렸다.

사우디,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란과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된 미국과 아랍과의 연합 형성은 모든 아

랍국가를 통제하려는 전제군주와 石油富를 통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새로운 中東의 기류를 암시하고 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연합은 아랍국가에게 더 많은 민주화와 화학무기 및 핵무기를 제거하는 군사적 균형과 비록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의 증가를 억제하는 최소의 수단을 의미하고 있다.

더구나 후세인이 쿠웨이트 유전(油田)을 강점한 이후에 상실한 세계 석유의 하루 생산수준을 보충할수 있는 수준에서 사우디가 계속적으로 석유의 생산을 유지하는 동안 미군은 이라크로부터 사우디를 보호하였다.

또한 미국내에서는 경기침체에 빠진 루이지니아 및 텍사스와 같은 석유를 생산하는 주(州)들을 8월의 석유가격 상승이래로 과거 걸프灣 위기동안 잃어버린 27조5천6백억원(4백억불) 이상을 회복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이라크는 단지 쿠웨이트와 그리고 얻은 이익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금수(禁輸)조치를 얻었을 뿐이다.

미국의 걸프만정책이 강력한 마키아벨리주의와 같은 경향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획득한 것을 이용할수 있도록 향후 몇년 동안 미군은 중동에 남아있을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이 여담으로 말하는 것처럼, 얻은 것은—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지배할수 있도록 하고, 다른 페만국가를 막연하게 위협할수 있게 한다면, 새로운 냉전이후의 시대는 기반을 잃어버릴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정책에서 생긴 잉여물이다.

군사적 교훈

美 국방부의 분위기는 걸프만 위기와 예산난관 그리고 여러 어려운 문제로 휩싸여 있다. 국방부 정책입안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몇몇 전쟁 시나리오들이 초기에 발생하였다면 미군은 몇몇 굉장한 어려운 역경에 직면하였을 것

이다. 여기에 새로운 걸프만 교훈들중 하나의 예가 있다.

大戰의 시나리오에서 사용될수 있고, 低밀집 분쟁(LIC)/신속배치군에서 사용할수 있는 2중용도의 장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작고 가볍지만, 아주 치명적인 장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130기로 수송할수 있는 강력한 中型의 포를 장착한 輕전차, 이동/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비의 사전배치」이다. 사전배치라는 개념의 최대의 효용은 먼 지역에 전투병력의 이동을 고려할때, 시간과 비용을 막대하게 절약할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임무와 전천후/쏠지형 장비의 가치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지휘통제와 강습 및 방공 그리고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장갑차량(LAV)을 美 해병이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근접공중지원기의 역할을 곧 할 것이고, 다른 기종의 역할도 할 F-16기가 기대되고 있다. 장비획득 관계관들은 앞으로는 이런 장비의 개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과할수 없는 처전자전 방호장비의 계속적인 소요이다.

전투기 속에 있는 하나의 電子準裝備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제공권의 상실을 의미하고 나아가 공중전에서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공기의 레이다 경보장비와 같은 구성품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징발한 美製 Hawk 방공장비를 배치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11월초 어느 누구도 걸프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견할수 없었다. 더구나 이라크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침략 국가로서의 모델이 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분쟁교훈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旭) <Miltech 90/12>